

민주당 공천심사 본격화... '시스템 물갈이' 성공할까

컷오프 '하위 20%' 효과 미미
공천시스템 '세부설계'가 관건
오늘 선대위 발족 총선체제
이해찬·이낙연 투톱 진두지휘

해 "(대상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이것으로 인한 불출마 선언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 하위 20% 대상자라는 추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대상자들이) 경선까지 가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제는 종합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물갈이가 유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공천률을 규정한 특별당규를 보면 물갈이를 유도할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 우선 종합심사시 여성·청년에 대한선 10~25%, 정치신인에 대한선 10~20%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한다. 종합심사를 거쳐 경선이 이뤄질 시에도 여성은 득표수의 25%(전원직 의원 등은 10%), 청년은 10~25%, 정치신인은 10~20%가 가산된다. 20% 감산을 받는 현역 의원의 경우 최대 45%를 초과하는 격차를 벌려야 낙선을 면할 수 있는 셈이다.

종합심사의 배점을 통해서도 '현역 컷오프'는 가능하다.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공천적합도(당선가능성) 조사(40%)의 점수배점상 결과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천규칙상 종합심사 점수 격차가 30점 이상이거나 공천적합도 조사 격차가 20% 이상일 때는 경선이 아닌 단순공천을 줄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 및 설치 안건을 의결한 뒤 선대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의 좌장 격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이와 함께 김부겸·김영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들이 권역별로 선거를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선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총선 역할론이 대두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대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분간 선대위와 최고위 '투 트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대위는 임

의기구이기 때문에 공천 등 당헌·당규상 주요 의결은 최고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천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선대위 체제로 전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월·수요일은 최고위원회의, 금요일은 선대위 회의 등 이런 식으로 투트랙 운영이 될 것"이라며 "공천이 완료되면 최고위보다 선대위가 전면이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행위"

문 대통령, 정부서울청사서 점검회의...총력 대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점검하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이지 않고 직접 정부청사를 찾은 데에는 그만큼 부처들이 현장에 밀착해 이번 사태에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제적 예방 조치는 필수로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엄정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심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생활공간과 관련해 "정부는 임시생활 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키로 한 정부 방침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민반의 대책을 약속하며 '달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국정的首要 우선순위로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국 인입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도 평소보다 빨리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게시됐으며 30일 현재 일주일 만에 59만명이 동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라진 안철수 변수 ... 제3지대 신당 급물살 타나

평화당 정동영 '야권 하나로 묶어야'... 호남 소통합 참여 의사
대안신당 최경환 '순학규 큰 틀 공감...로드맵·시점 고민할 때'

안철수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을 계기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신당 통합 흐름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0일 "지리멸렬한 야권을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분열 상황을 끝내고 통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 개막을 위해 제3의 축

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의 소(小)통합 논의에 본격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호남은 4년 전 양당제를 극복 하라고 (국민의당에)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몰아줬는데, 이것을 분열시키고 해체했다"며 "호남 민심 앞에 누구 가릴 것 없이 앞뒤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

했다. 또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통합의) 목표는 연동형 선거제 완성 과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뜻을 함께 한다면 제 세력이 함께 모여 개혁의 제3축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도 이날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통합의 물꼬가 세차게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순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

표를 찾아가서 (통합에 대해) 말씀드리자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로드맵과 시점, 고민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평화당 정 대표가 언급한 세 가지 원칙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순학규 대표와 당에 잔류하고 있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 어느정도 정치적 합의점을 찾았다면 제3지대 신당으로의 통합 흐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순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은 하루 이틀 사이로 회동을 갖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91202-중-10229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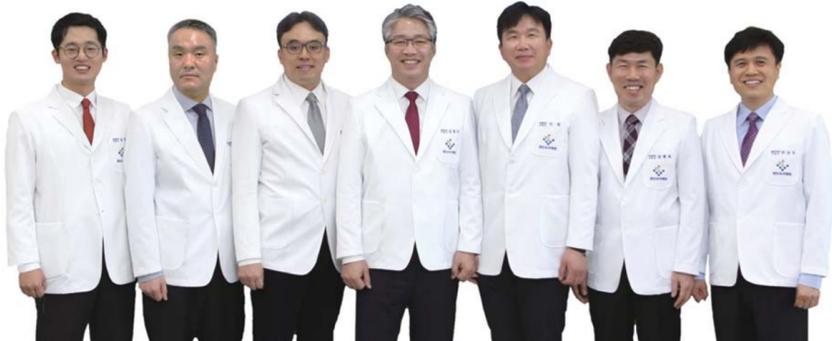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